

진보당



노원구의회
NOWON DISTRICT COUNCIL

제30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

위험에 노출된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
노동자들의 근무형태와 수거체계를
전면 개선하자.

최나영 의원

공릉1·2동 / 도시환경위원회





경북 영천. 새벽4시. 점멸신호 교차로.
덤프트럭과 충돌한 수거차 탑승한
노동자 3명 전원 사망.



종로구. 새벽 3시. 나홀로 수거 노동자.
미끌어져 내려온 자신의 수거차에 치여 사망.

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(안전기준)

- <주간 작업>을 원칙으로 할것
- <3인 1조 작업>을 원칙으로 할것

*** 그러나,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**예외**를 둘수 있도록 함

노원구 비롯 상당수 자치구들에서 <밤샘> <1인작업> 만연.

노원구 폐기물 수거현황

공무원 노동자들 : 가로청소, 주택가 재활용, 폐소형가전, 폐형광등, 건전지, 무단투기, 기동대 등 업무시행

6개 대행업체 노동자들 : 종량제폐기물, 음식폐기물, 대형폐기물 등 업무시행

6개 대행업체별 1인 작업 현황

(단위 : 대) 권역	업체명	1인 작업 최대 운영 현황(차량 기준)			비 고
		일반	음식물	대형	
1	영명환경	-	1	-	※3.5톤차가 운행하기 힘든 평지 지역만, 폐기물의 적시 수거를 위해 주간, 임시 운영
2	토재기업(주)	2	1	-	
3	(주)녹원기업	2	-	1	
4	(주)한국진개	2	-	1	
5	철한기업(주)	4	-	1	
6	(주)노원산업	4	1	-	

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현황(건수)

		구분	2025년			
			직영		위탁	
			재해발생	산재승인	재해발생	산재승인
		사고유형				
서울	노원구	총 계	15	15	0	0
		소계	15	15	0	0
		사업장내 교통사고				
		사업장외 교통사고				
		불균형·무리한 동작				
		떨어짐				
		넘어짐	13	13		
		부딪힘				
		물체에 맞음				
		끼임				
		절단·베임·찢림				
		깎림·뒤집힘				
		작업성질병(뇌심 등)				
		기타	2	2		
		소계	0	0	0	0
		사업장내 교통사고				
		사업장외 교통사고				
		떨어짐				
		넘어짐				
		부딪힘				
		기타				

노원구 곳곳, 밤샘, 노동자 10명 면담 결과

- 전원이 본인부상, 접촉사고 경험 있음.
- 전원이 보험료 올라간다고 회사가 싫어하여 보험처리 못하고, 수십수백만원 들여 자부담으로 치료, 배상 처리함.
- 1년계약인데, 다음에 근로계약 안될까봐 절대 보험처리 못한다고 함.
- 수년을 매일 밤새워 일하니, 가족 친구와 여가를 함께 보내는 날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다수.

노원구 곳곳, 심야, 노동자 10명 면담 결과

(1인 작업자의 경우)

- 1인이 승차, 운전, 하차, 수거를 홀로 반복함
- 종량제, 음식물을 동시에 하고 있음
- 밤샘노동을 하고 있으며, 임시가 아니라 지속적인.
- 야간 골목길 곳곳에 주차된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와 부딪칠까봐
긴장되어 있음.

노동자들의 공통점!

실태를 말하면서

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워 함

문제점

- 1) 산재 은폐 구조 : 고용불안으로 인해,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, 개별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 (금전적 부담 막중)
- 2) 1인 단독작업의 위험한 노동이 만연 (명분 : 낮시간 도시미관, 민원발생, 인건비절감)
사고 발생 가능성 높고, 사고시 대처 불가.
- 3) 야간작업은 노동자의 건강,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함. (인권침해)
 -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에서 야간작업을 발암물질로 지정함
 - 수면 질 저하로 만성피로 심각, 소화기 질병, 대사증후군 발생.
 - 사회관계 어려워 고립, 우울 장애 발생
 - 밤샘은 집중력과 반응속도 떨어져 사고 위험 증폭

**도시 미관을 핑계로,
비용절감을 이유로
폐기물 수거라는 필수노동을
민간 대행업체로 넘기고
모두의 시선 밖 위험한
심야노동으로 밀어낸 결과!**



대책 및 개선방안

첫째, 직접고용 및 고용안정 (위험의 외주화, 단기근로계약 근절)

민간위탁 72.6%, 5년간 노동자 642명 사망 - - - > 재공영화 해야

둘째, 1인 단독작업 근절 (인력확충)

셋째, 주간작업으로 전환

- 강동구, 도봉구 시행중. (심야노동 없애자는 홍보 강화하면서, 주민 적응함). 독일 대표적인 사례.

'비용 절감'보다, '노동자의 생명안전' 을 상위가치로 두는 도시로!